KB금융, KB 삼성동PB센터 WM복합점포 신설 KB금융그룹은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KB 골드&와이즈(GOLD&WISE) 삼성동PB센터' WM복합점포를 신규 오픈했다. 이홍구 KB증권 강남지역본부장(왼쪽 두번째), 이창길 KB국민은행 강남지역영업그룹 대표(세번째),김영길 KB금융그룹 WM부문장(네번째) 및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금융그룹

NH농협은행, 고객과 함께하는 매직 테니스 레슨 NH농협은행은 지난 30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NH디지털혁신 캠퍼스 테니스장에서 고객 60여명과 함께 '고객과 함께 하는 매직 테니스 & 원포인트 레슨'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매직 테니스'란 작고 가벼운 라켓과 말랑말랑한 고무공을 이용해 실제 네트보다 작은 공간에서 어린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기준으로 왼쪽에서 세 번째)과 고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NH농협은행

중기중앙회, 공정경쟁聯과 中企 공정거래 의식 고취 맞손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경쟁연합회와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준법 의식 및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왼쪽 4번째부터)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호텔신라-중구문화재단, '중구는 예술대학' 첫 입학식 호텔신라는 중구문화재단과 지난 9월 30일 충무아트센터에서 '중구는 예술대학' 첫 입학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서울시 중구 서양호 구청장과 서울시의회 박순규 의원, 중구문화재단 윤진호 사장, 호텔신라 사회공헌단장 천경기 상무를 포함해 '중구는 예술대학' 입학생 140여 명이 참석했다. /호텔신라

롯데칠성음료, NCSI음료부문 7년 연속 단독 1위 롯데칠성음료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기업 시상식'에서 7년 연속 음료 부문 단독 1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세부 항목인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 인지가치, 고객충성도 및 고객유지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7년 연속으로 음료부문 단독 1위를 차지했다. /롯데칠성음료

국군의 날, 군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문형철 기자의 국방칼럼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을 떠올려 본다. '군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국군 장병들의 자조적 말처럼, 머리가 무거워져 간다.

어릴 적 '국군의 날'에 대한 회상 중, 국군 장병들과 군용 장비들이 가두행진을 하는 모습이 가장 또렷하게 남는다. 그리고 '국군 아저씨께...'라고 시작하는 위문편지를 썼던 기억도 함께 떠오른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군사정권의 교육을 받아온 탓일까. 아니면 공휴일에서 국군의 날이 빠지게 돼 축하의 분위기가 사그러든 탓일까.

부산시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군의 날인 1일까지 부산 주요지역에 국군의 날 기념현판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공) 창건70주년' 현판의 부착을 승인했다.

현판 등의 부착승인은 예하 각 구청의 소관임에도 부산시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여러모로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부산에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U.N(국제연합)기념공원'이 있다.

1951년 1월 18일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설립된 이곳에는 한국전쟁(6.25) 전투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국 6개 국가 중, 17개국의 전사자들이 각각의 애틋한 사연과 함께 묻혀 있다. 묘소가 설립되기 2주 전, 유엔군은 중공의 인민해방군에 의해 '1.4후퇴'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기자가 최초로 보도하자, 부산시는 '용어'와 '절차'의 적법성을 들어 문제가 없다며, 개선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군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중요한걸까.

중국어 신문인 싱가폴 조바오(朝報) 일보와 Epoch Times도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국군의 날과 유엔군의 희생보다 중공 창건일에 손을 들어준 부산시청을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이 안쓰럽게 보이나 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대구 공군기지를 방문해,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직접 주관하면서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국의 깃발도 이날 기념 행사장에서 휘날렸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국군 장병들은 항상 시달린다. 최근 일부 시민이 일본 기업인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는다는 이유로 출타 장병을 신고했다. 제대로 차비를 지불하고 지정받은 버스좌석에서 자신이 거기에 앉겠다며 국군 장병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한 여대생도 있다.

심지어 예비군의 일원으로 훈련에 참가한 예비역 장교에게 한 지역 경찰은 민간인이 군복을 착용했으니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군복을 입은 자들은 죄인이며 격리해야 할 대상인가 보다.

외국처럼 제복에 대한 존중은 바라지도 않는다. 국군 장병들의 잘 못은 지적해야겠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고단한 청춘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내는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

/captinm@metroseoul.co.kr

안티에이징 성형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고령화 사회에 정착하면서 중장년층이 유통·미용업계의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꿈꾸는 이들은 패션, 미용, 성형, 화장품, 문화를 가리지 않고 높은 소비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바로 '미용성형'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오래 유지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장년층은 또렷한 이목구비와 작고 갸름한 V라인 얼굴형을 선호하는 젊은층과 달리 주름과 탄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anti-aginf) 성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편이다. 현재 성형외과에서 시행 중인 안티에이징 성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름이 많고 탄력이 없는 중장년층에게는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안면거상술(페이스리프팅)'이 가장 효과적이다.

안면거상술은 늘어진 피부를 완전히 박리(剝離)해 팽팽하게 당겨준 후 남은 피부를 제거한 뒤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아주는 시술로 리프팅 효과와 주름 개선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안면거상술을 시행할 때 피하지방 피판과 스마스층(피하지방과 근육 사이) 피판을 함께 박리해 당겨주는 것이 핵심인데, 임상경험이 부족하면 피부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건드리거나 혈관을 건드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 스마스층 바로 밑에는 안면신경이 자리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안면신경을 손상하지 않고 스마스층만 박리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전한 귀 앞부분의 침샘 부위에 해당하는 범위까지만 박리해야 하고, 이때 눈가주름의 원인이 되는 일명 까치발주름(안륜근)을 제거해주면 영구적으로 눈가주름을 없앨 수 있다.

이처럼 안면거상술은 한 번의 수술로 이마주름, 팔자주름, 눈가주름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개방향이나 리프팅 방향이 잘못되면 입이 찢어져 보이거나 안면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안전하다.

만일 수술 후 부기나 흉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안면거상술의 단점을 최소화한 미니안면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니안면거상술은 부기가 오래가고 흉터가 많이 남는 안면거상술의 단점을 보완한 수술방법으로 중장년층을 비롯해 젊은층에게도 적합한 수술이다.

미니안면거상술을 시행할 때는 절개방향과 박리 범위로 측두부의 헤어라인과 구레나룻의 헤어라인을 따라 피부를 절개한 뒤 눈꼬리에서 입가, 하악골 하단까지 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구레나룻 하단 부위를 최대 리프팅 포인트로 해 피부피판을 당겨주고 남는 피부피판을 절개선을 따라 제거한 후 봉합해야 칼귀 현상이나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미니안면거상술이나 안면거상술은 피부를 박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목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목주름 개선 수술을 따로 시술해야 하고 눈꺼풀 처짐이 심한 경우에도 이마거상술이나 눈썹거상술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임명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박형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이원택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장 고호연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천연기념물과장 황권순 △문화유산교육팀장 전기선

◆**한화손해보험** ◇임원 전보 △디지털혁신실장 김민기 △고객시장혁신실장 변동헌 △자동차보험부문장 정의봉 △경영지원실장 장창섭 ◇부서장 전보 △강북지역단장 김원하

◆**에너지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장(부국장) 송경남

◆**서울문화사** △여성경제신문 광고팀장(부국장대우) 김영웅

◆**미디어피아** ◇승진 △경마사업본부장 겸 상무 서석훈 △미디어사업본부 콘텐츠제작팀 선임기자 황인성 △미디어사업본부 운영관리팀 대리 안주년 ◇전보 △경영본부장 송종기 △방송본부장 곽재우 △미디어사업본부 총괄팀장 이용준

◆**스타뉴스** △편집국 편집위원 배병만

부음

▲ 고숙희씨 별세, 전철홍(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실장 겸 대변인)씨 모친상 = 1일 오전 8시 20분,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0월 3일 오전 7시30분. (02-2030-7900)

▲ 지영식(전 동양유업 대표이사)씨 별세, 지준환(클립스 대표이사)·지상환(바이럴엠 이사)·지동환(바이럴엠 이사)씨 부친상 = 1일 오전 7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광주 시안가족추모공원. 02-2227-7547

▲ 이선열씨 별세, 이규승(패션마스터 대표이사)·이문숙(SADI 겸임교수)·이송민씨 부친상, 양은경씨 시부상, 한승웅(내일LMC 차장)·김영훈(대학내일 대표이사)씨 장인상 = 9월30일 오전 10시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낮 12시 입실 예정), 발인 3일 오전 7시, 장지 천주교 안성추모공원. 02-2258-5940